

길 열어도면 걸어갈 사람 온다

만기사 주지 원경 스님



들판이 비었다. 창해(蒼海)같은 여름도, 금란가사(金欄袈裟)를 펼쳐 둔 것 같은 가을도 지나가 버리고 들판은 비었다. 빈들이 배풀어주는 황량함이 제행무상을 설법 하는 것이라면, 그 설법에서 언어들을 진리 하나를 가슴에 채워야 할 터. 만구의 들길을 지나가며 객기(客氣)로 내뱉는 독백이 그 진리는 아니겠지만.

“그러, 들판이 비었으니 누군가의 공간은 찻갯지...”
그렇게 심심풀이 망상을 즐기는 동안 어느새 차는 무봉산(舞鳳山) 자락으로 접어들었다. 한 20년 됐나? 그때 우연히 들렀던 만기사(萬奇寺)는 참으로 소박한 절이었다. 고려시대에 조성된 철조석가(鐵造石伽) 여래좌상(보물 제567호)의 맷시가 하도 단아하여 자주만 쳐다보았던 기억이 새롭다.

아트막한 산일지라도 가을은 어김없이 찾아왔고 이제 겨울에게 자리를 비켜 주고 있다. 나뭇잎 바삭거리는 소리에 부처님 귀가 간지러울 것 같다.

“와, 이럴 수가...”
큰길에서 절 쪽으로 접어들자마자 웅장한 도량이 떡 버티고 섰다. 기억속의 만기사는 소담한 옛 절집일 뿐이었는데, 그 사이 얼마나 큰 원력으로 불사를 진행했는지 한 눈에 알 것 같았다. 조각형식으로 지어진 명부전 아래를 통해 안마당에 들어섰을 때 또 한 번 놀라야 했다. 오른 쪽 구석에서 선홍빛 단풍이 활활 타오르는 불길처럼 붉은 기운을 뿜어내고, 돌계단 위에 웅장하게 서 있는 대웅전은 세간에서 짙어지고 온 죄의 보따리와 함께 털썩 주저앉고 싶은 마음이 솟구치게 했다.

도둑질하러 온 사람처럼 조용히 범당 문을 열고 들어가 석가여래께 삼배를 올리고 나니 마음이 편해졌다. 휴~ 이것도 제행무상이러니...
범당에서 나오니 절집은 쥐죽은 듯 조용했다. 앞마당 채소밭 가에서 엔진톱 소리가 들렸다. 두툼한 잠바를 입은 처사님들이 겨울빨감을 준비하는지 나무를 자르고 있었다. 낯선 사람이 다가가도 모른 채 일만하는 처사님들, 아니, 그 뒤편에 스님 한 분이 쭈그리고 앉아서 전기톱을 움직이며 나무를 자르고 있었다.

“원경 스님을 뵈러 왔습니다. 스님 어디 계시는지요?”
“.....”

“주지 스님을 뵈러 왔더니요?”
엔진소리 때문에 질문이 안 들리는 듯해서 큰소리로 물었다. 그래도 말이 없던 스님이 천천히 일어섰다. 오래 앉아 있었던지 바지에 수북 묻은 흙발을 털면서 “현대불교에서 오셨나? 에이고, 오지 말라고 했는데...” 하시는 게 아닌가? “아이고, 스님이 시군요? 못 알아 봐서 죄송합니다.” 몸 둘 바를 모른 채 인사를 드려도 먼 산만 바라보면서 “얼굴 봤으니 이제 돌아가시면 딱 좋을 것 같은데...” 할 뿐이었다.

원경(圓鏡·70) 스님. 인연 용화사 조실 송담(松潭)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지 50년이 된 원경 스님은 여주 신륵사 등 큰 절 주지로 역임했지만, ‘박헌영의 아들’이라는 이유 때문에 더 주목 받았다. 그러나 수행자에게 그런 주목은 매우 불편한 것이었고 불편한 만큼 자신을 더 철저한 수행자로 단련시키게 했다. 민족주의자요 독립운동가이자 혁명가였으며 당대 최고의 공산주의 사상가였던 박헌영. 남로당을 창당했지만 남한에서 정착하지 못하고 북으로 올라가 조선노동당부위원장으로서 김일성과 어깨를 견주었지만 창창(蒼蒼)하던 꿈을 이루지 못하고 역사에서 사라졌던 인물.

아직도 역사 위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측면이 다분한 선친(先親)에 대한 원경 스님의 마음은 아무도 모를 것이다. 그런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난 그 하나의 이유가 남모를 눈물과 남다른 비장함으로

에서는 나무가 썩어가고 한 쪽에선 비싼 기름을 태우는 부조리를 절집에서는 용납할 수 없다는 뜻일 게다. 먼저 불사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절터를 넓히고 다지기 위해 쏟아 부은 흙이 25톤 트럭으로 8000대나 된다고 했다.

“그래도 그게 다 한 가지 일입니다. 불보살님의 은혜 같은 일이지 다른 게 아니잖아요. 조금씩 뜻이 모아지고 힘이 닿는 대로 하다 보니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일주만 세우고 천왕문에 사천왕을 모시면 어느 정도 마무리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런데 일이란 게 시작을 하면 자꾸 커지게 마련이라서 망설이게 되고 인연이 더 익도록 기다리고 그러는 겁니다.”

은사인 송담 조실께서는 언제나 “참선 외에는 중생고를 벗어날 길이 없다”고 강조했지만, 원경 스님은 “도량하나를 반듯하게 일구어 놓는 것도 내 마음에 베풀어주어서 계획한 불사는 다 마치고 싶다”고 말했다. 스님은 달마대사의 ‘무공덕’ 화두를 설명하며 “그래도 길을 열고 안내하는 일은 누가해도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절을 지어 놓고 선원을 만들어 두면 언제가 어떤 인연으로든 이곳에 찾아와 정진할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산속의 짐승들에게도 그들의 길이 있고 사람에게도 사람의 길이 있듯이 누군가 길을 열면 반드시 그 길을 밟는 인연이 있을 것이기에 오늘의 만기사는 내일의 도량이 되는 겁니다.”

원경 스님은 잘 지어진 선원 건물의 지하방에서 기거한다. 아무래도 불편한 점이 많은 텐데, 굳이 지하방을 고수하는 이유가 궁금했다.

“눈 푸른 운수들이 찾아와 성성하게 화두를 밝히고 정진할 도량을 지은 것이지 내가 편히 지낼 요사를 지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잘라 말하고는 천천히 책 한 권을 내밀었다. 두툼한 시집 한 권. <못다 부른 노래>라는 제목의 이 시집은 지난여름 선친의 서거 55주기 기일(7월 19일)에 맞춰 출간한 원경 스님의 시집이다. 수월의 행간에 낙서를 하듯 써 두었던 글들을 모으니 500편 가까이 됐고 그 가운데 추리고 추려서 240여 편을 한 권에 묶었다. 스님이 스스로 자처한 일은 아니고, 황석영, 김지하, 이동순, 임현영을 비롯한 문화계의 중진 원로들이 간행위원회를 꾸려서 뒷받침을 해 주어 성사된 불사다.

원경 스님은 이 시집의 서문을 대신하여 ‘나의 이야기’란 제목으로 성장기를 밝혔다. 등성등성 소개하면 이렇다.

“아버지는 독립운동가이며 혁명가인 이정(而丁) 박헌영이었으며 어머니는 정순년이었다. 그러나 아버지의 이름이 말해주듯이 한국 현대사의 비극을 그대로 물려받고 태어난 나의 고달픈 운명은 미리 예견돼 있었다. 나는 백일이 안 되어 젖도 못

‘박헌영의 아들’ 불편한 주목 받을수록 수행에 매진 뒷사람 공부하는 도량 만들고자 만기사 사격 ‘일신’

로 세상을 견디도록 했을 뿐. 그래서 가끔적이면 혈연에 대한 질문은 드리지 않을 참이었다. ‘돌아가라’던 스님이 다시 천천히 발길을 옮겼다. 흰 강아지와 함께 졸졸 따라가니 “추운데 들어가라”며 무봉선원 맨 끝 방의 미담이문을 열어 주었다. 그리고 스님은 장작을 한 소쿠리 가지고 들어와 방구석에 있는 나무난로에 불을 붙였다. 그다지 크지 않은 난로지만 보일러 기능이 있어 선원 건물 전체를 덥혀 준다고 했다.

천천히 걸어와 천천히 방문을 열어주고, 천천히 장작을 안고 천천히 난로를 피우고, 천천히 다관을 씻어와 천천히 차를 우려내고, 다시 천천히 찻잔을 내밀고는 천천히 말을 시작했다.

“나무가 아깝잖아. 요즘은 산마다 간벌한 것도 많고 불사하고 나온 폐목도 많으니 이렇게 나무를 때서 열을 얻는 거지. 물론 사람 사서 나무하고 어찌고 하면 차라리 기름보일러가 타산이 맞지만, 절에서야 이렇게 나무를 처리하지 않으면 폐목재 버리는 데도 다 돈이 들어가든.”

물론 경제적인 타산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한쪽

원경 스님은 ...
1941년 충주에서 태어났다. 이경 박헌영의 아들로 태어나 한국 현대사의 격변기를 어린 몸으로 견뎌야 했다. 10대 초반에 지리산에서 빨치산들과 과도 지냈고, 화업사 정암사 등에서 행자생활을

하며 경전을 익혔다. 1960년 송담 스님을 은사로 정식 출가하여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수도 없이 수행자로서의 본분에만 몰두했다. 여주 신륵사·흥왕사(서래암) 등 주지를 역임했으며 1995년 이후 평택 만기사에서 중창불사를 진행하고 있다.

가족의 건강지킴이! '휘나 핫 반신욕기'

무릎찢질, 허리찢질, 족욕, 좌욕, 반신욕, 사우나, 한번에...OK!

목욕탕 문화가 바뀌었다
물 없이도 할 수 있는 반신욕법

반신욕을 하면 하체의 따뜻한 혈액과 상체의 차가운 혈액사이대 대류현상이 일어나 피가 잘순환 된다. 한의학에서 보면 두한족열의 원리로 목욕 노폐물이 피부 함께배출되기 때문에 신체의 상태가 좋아진다. 휘나 핫 반신욕기는 3~4년전부터 하루 200~250명씩 무료체험을 하였으며 지금은 유료화에도 불구하고 체험방을 이용하는 체험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 이런 장점 때문에 휘나 핫 반신욕기는 옷을 입은채 무릎찢질, 허리찢질, 족욕, 좌욕, 반신욕, 사우나를 동시에 즐길 수 있고 편히앉아서 책이나 신문 TV등을 볼수 있어 획기적인 반신욕기로 각광을 받고 있다.



법)을 혼합하여 특수제작한 슈퍼블랙디스크를 개발하는데 성공했으며, 이를 자사의 브랜드인 휘나 핫 반신욕기에 내장하여 보건진료소, 노인정, 경노당,한의원,산후조리원,복지원,등에 납품 하고 있고, 2011년에는 가정용을 개발하여 "특별할인된 가격으로 한가정에 반드시 한 대씩 보급 될것이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가능성 반신욕기 어디까지 개발됐다
기술의 진보가 건강 혁명을 일으켰다
휘나 핫 반신욕기는 한마디로 기술의 진보가 이룩한 건강혁명이다.

휘나 핫 슈퍼블랙디스크 반신욕기는 일반제품과, 제조방식이 전혀 다르며 30여종의 광물질에서 방사되는 B.C.P 슈퍼블랙디스크는 섭씨450도로 가열할 때 발생하는 특별한 온열이다. 여기서 나오는 원적외선, 음이온, 온열로 반신욕을 즐기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반상 발열체 반신욕조와는 비교가 안되는 획기적이 가능성을 갖는다. 휘나 핫 반신욕기는 기능성 외에도 친환경을 고려했다. 이동이 편리하고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도록 설계했으며 가구개념을 도입하여 고품스런 분위기를 위하여 원목(적삼목)으로 제작했다. 휘나 핫 B.C.P 반신욕기는 신개념의 발명품이랄 수 있다.

문의 : 02-875-0600

www.hwinahot.co.kr

계좌번호 : 국민 404601-01-046107

예금주: (주)휘나 핫

판매원, 제조원 : (주)휘나 핫

※ 대리점, 취급점, 영업사원모집

암과 현대병을 쉽게 다스리는 방법

황토 삼백초 효소 발효건강법

멸종 위기 식물 177호
변비 생리통 특효

"세포의 생성을 촉진하고 혈액을 깨끗하게 하는 삼백초 효소 발효액은 심각한 환경오염에 노출된 인체에 건강을 되찾아주는 최고의 처방이다"



황토 삼백초 효소 발효관리법
부림출판사 | 임상적 지용 | 값 5,000원

노화와 난치병을 이기는 삼백초의 놀라운 효능!
변비, 숙변, 생리통을 없애는 날마다 기분 좋은 건강 비결!
간질환, 당뇨, 신장질환, 동맥경화, 고혈압, 심장병, 부인병, 비만치료!

희귀미네랄의 보고 삼백초

희귀미네랄의 보고 삼백초. 삼백초에는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게르마늄과 남성 성기 등에 중대한 작용을 하는 아연, 기운을 북돋는 유기붕소가 들어있다. 삼백초를 꾸준히 섭취하면 만성피로가 사라질 뿐 아니라 남자의 스테미너가 넘치고 기운이 솟는다!

문의 : 070-7804-5358

계좌 : 농협 351-0260-3196-83 예금주 : 부림출판사

모리다 요시오 박사와 의사 이토 오사무의 치료 사례 - 25,000명을 임상실험한 결과 밝혀진 효소의 놀라운 효과

반건강 상태는 1개월만에 완치 / 정력이 되살아 난다 / 불임이 치유된다 / 기미가 사라진다 / 속취가 없어진다 / 위궤양이 치료된다 / 무좀이 없어진다 / 치질이 치료된다 / 탈모가 치료된다 / 류머티즘 관절염이 치료된다...